

# 이재명 “초반 열세 곧 뒤집는다”…반성과 쇄신 드라이브

“새 민주당으로 거듭 나겠다”

사죄의 큰절 연일 반성 모드

지지를 격차 줄어 민심 긍정 반응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반성과 쇄신’ 모드로 전환하면서 대선 초반 반전의 계기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단 민심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선대위와 당의 쇄신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정책 이슈와 미래 비전을 내세우며 중도층 공략에 나서, 내년 1월에는 대선 판세에서 확실한 승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주 광주·전남 방문을 통해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반성과 쇄신 모드=윤관석 사무총장 등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은 24일 당 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정당한 각오로 새 민주당 만들기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선대위는 출범 19일 만인 지난 21일, 전면쇄신과 백의중군을 결의한 바 있다. 선대위와 당의 재편은 민심에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이를 통해 대선 초반 판세를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도 사죄의 큰절을 하는 등 반성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미흡하지 못한, 국민의 아픈 마음을 더 예민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참석자들 앞으로 나와 큰절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2일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 “국민들께서 ‘왜 다 환수하지 못했

나’, ‘왜 민간에 저런 비리 잔치를 예방하지 못했나’는 지적에 대해 나는 책임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그 자체가 저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사과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철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재난 지원금 문제는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연계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의 결단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반전의 계기 마련=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성 및 쇄신 모드에 민심은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두 자릿수까지 벌어졌던 지지를 격차가 크게 좁혀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과 민주당도 이 같은 결과에 고무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에 약이 됐다든지라도 나오고 있다. 위기감이 진보 진영의 결집과 여권의 쇄신을 불렀다는 것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반성과 쇄신을 토대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과 선대위의 쇄신을 이뤄내고 참신한 외부인사 영입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 측은 정책·입법 속도전 등 개혁·실용 행보를 통해 다음 달에는 국민의힘 윤 후보를 따라잡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가 선대위 구성 막판 진통에 휘둘러 행보가 주춤한 틈을 노려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중도 표심에도 한발 먼저 다가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입각에서는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1월에는 역전은 물론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에서는 이번 주말 광주·전남을 방문, 호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광주·전남을 방문,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주목된다. 이 후보가 부산과 충청의 매터버스(매일타는민생버스) 방문에서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더니 광주·전남지역이 진보 진영의 심장이라는 점에서 호남 민심을 움직일 메가 이슈를 내놓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죄의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남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차기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며 “광주·전남지역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당 지도부가 이 후보와 깊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번 주말 광주 동행은 일정 문제 등에 따라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설 적절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대선 다자대결 윤석열 38.4%·이재명 37.1%

갤럽 조사... 격차 1.3%p로 줄어  
리얼미터 조사 44.1% vs 37.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의뢰로 지난 22일~23일 전국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요 후보 간 5자 가상대결에서 윤 후보는 38.4%의 지지율로 이 후보(37.1%)와 1.3%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5%,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3% 순이다.

윤 후보는 41.7%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3.3%포인트 하락했으며, 이 후보는 32.4%에서 4.7%포인트 각각 상승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9.3%포인트에서 오차 범위 내 박빙인 1.3%포인트로 좁혀졌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2주 전에 비해 4.4%포인트 하락해 36.8%, 민주당이 2.9%포인트 상승한 33.2%를 기록하면서 오차 범위내로 좁혀졌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56.6%에서 53.5%로 3.1%포인트 줄어든 데 비해 정권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는 응답자는 30.9%에서 37.2%로 6.3%포인트로 다소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전화인터뷰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6313명에게 접촉해 최종 1011명이 응답 완료 해, 1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또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무선 90%·유선 10%)에서는 윤 후보 44.1%, 이 후보 37.0%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인 7.1%포인트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 대비 윤 후보는 0.3%포인트 내려갔고, 이 후보는 2.4%포인트 상승하며 격차가 좁혀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0%,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8%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윤 후보는 컨벤션 효과가 소멸하는 가운데 상승 캐리트를 이어갈 모멘텀 부재 속 약 보합을 보였다”며 “이 후보 반등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선회 등 정책 유연성, 매터버스 청년 정책 발표, ‘특급 수용’ 등 약재 해소, ‘전 국민 선대위’ 등 선대위 체질 변화 등 조직 정비 등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 48.9%, 이 후보 39.3%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차이는 9.6%포인트로 지난 조사(13.0%포인트) 때보다 다소 좁혀졌다. 이들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눈물 잦아진 이재명·스타일 바꾼 윤석열...이미지 메이킹 경쟁

이, 캐주얼 정장으로 의상 변화

윤, 끈대 이지미 탈출에 총력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이 펼치는 ‘이미지 메이킹’ 경쟁이 관전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무겁고 딱딱한 정책공약이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টে모를 민심을 ‘저격’하려는 장외 전쟁이라는 점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근 들어 부쩍 눈물이 많아졌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충남 논산의 재래시장 좌판에서 토란 나물을 파는 노인에게 물건값을 치르며 울컥했다. 이 후보는 고인이 된 모친 생각이 났다고 했다. 다음 날인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서는 부인 김

혜경 씨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 후보는 이어 22일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도 전국 순회 도중 시장에서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며 울먹였다. 사흘 연속 눈물을 보인 셈인데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이미지 ‘변신’ 노력도 눈에 띈다. 세간의 화제가 된 ‘혜경 벨트’ 사진도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공유됐다. 경선기간에 말끔한 수트를 입었다면 대선후보 선출 후 본선에서는 클래식한 느낌의 캐주얼 정장으로 의상 콘셉트를 바꾼 것도 변화를 준 대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최근 세련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부쩍 노력하는 모습이다. 2030 세대 일각에서 지적하는 소위 ‘끈대’ 이미지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달라진 해

어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이마가 흰히 드러날 정도로 머리에 힘을 주고 눈썹 메이크업도 짙게 하면서 당 내부에서도 ‘인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측근들 사이에서는 눈썹 문신을 한 것이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선이 깔끔한 감색 톤의 정장을 주로 착용하는 것도 말쑥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때만 해도 간간히 트레이닝 복 차림을 통해 소탈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것과 차별적인 모습이다. 정자권 입문 초창기 다리를 과하게 벌리고 앉아 ‘찍벌남’ 지적이 나온 것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공개석상에서는 앉은 자세가 달라지기도 했다. 메시지도 즉석 발언보다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활용, 정제된 발언을 하는 케이스가 늘었다. /연합뉴스

생명·영양·꿈·진심  
Land of Life, Best Jeonnam

국내최초 에너지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함께  
전라남도가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2년 3월 개교!

**한국에너지공대**

- '22년 3월 개교 / 40만㎡
- 1,000명 / 에너지공학부 (대학원 600, 학부400)
- 에너지 5대 분야 중점 연구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 고출력·고에너지 시설 / 50만㎡
- 레이저 과학·산업육성
- 대학·연구기관 통합연구 구축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대학·연구·기업 집적 / 40만㎡
- 공동캠퍼스·연구소·산업벤처 Zone
- 산학협력지원센터

전라남도